

교회소식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12월 성탄 감사 예배와 축하 전야제 안내를 드립니다. 성탄 예배를 염두에 두면서 개인의 일정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탄 감사 예배 - 12월 25일(금) 오전 11시
성탄 축하 전야제 - 12월 24일(목)
1부 오후 5시 30분: 성탄 축하 찬양
오후 6시: 저녁식사
2부 오후 7시: 축하 잔치
- 선교회 총회가 12월 13일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 새 가족 환영회가 28일(토) 오후 6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2여성교회 주관).
새 가족: 강성창, 김영아, 박진영, 박혜정, 서영애, 오인애, 왕중모, 이선주, 장경희
(누락자는 알려주세요)
- 경건한 예배를 위해 음향장비실을 본당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본당에 맞는 프로젝터가 필요합니다. 기증하시거나 도네이션 할 성도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오는 수요일 예배는 4남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2020년을 결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다음 주일은 권사회 기도주일입니다. 기도의 어머니가 되십시오 (느헤미야실, 11시 30분).
- 구주 성탄을 앞두고 교회 본당을 비롯한 주변 청소를 할 예정입니다.
일시: 12월 12일(토) 오후 1시 30분
- 21일 다니엘 기도회에 함께한 성도들에게 감사합니다. 기도로 신앙의 경주를 계속하기를 소망합니다.
- 2020년 청년 코스타(online)가 오는 25-28일까지 매일 저녁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있습니다.
- 이태한 목사는 왕가누이 한인 교회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출타합니다(24, 25일).

70 Khyber Pass Road, Grafton, Auckland
09 369 5077 / 021 968 388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11월 교회사역일지

11월 2일 (월)
다니엘 기도회
11월 8일 (주일)
인도자 공부
11월 25일 (수)
4남여선교회 헌신예배
11월 28일 (토)
새 가족 환영회
11월 29일 (주일)
대림절 1

11/12월 기도순서

11월 29일 (주일)
손조훈 집사
12월 2일 (수)
김민경 집사
12월 6일 (주일)
김병진 목사
12월 9일 (수)
김선화 권사

11월 예배봉사자

예배 안내
손조훈, 이기중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A, 허영순,
박소진



해/외/한/인/장/로/회
갈보리교회
교회창립 1999 / 07 / 18

22권 47호

2020.11.22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14

예 배 시 간 안 내

주일 1부예배 주일 11:20 am
주일 2부예배 주일 1:00 pm
청년예배 주일 3:15 pm
수요일예배 수 7:30 pm
금요일기도 금 7:00 pm
유아부 주일 1:00 pm
아동부 주일 1:00 pm
청소년부 주일 1:00 pm

주 일 예 배

1부 오전 11시 20분
2부 오후 1시
인도: 이태한 목사

찬 양	-----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이사야 44:6, 요한복음 4:24	인도자
✧ 찬 송	40장	다함께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 송	252장	다함께
대 표 기도	-----	박병민 장로
성경 봉 독	창세기 16:7-16	인도자
찬양대찬양	주여 나의 생명	나무십자가찬양대
설 교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태한 목사
찬 송	주만 바라볼지라	다함께
헌 금 기도	-----	인도자
교 회 소 식	-----	인도자
✧ 응 답 송	310장 (1,4절)	다같이
✧ 축 도	-----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섬 기 는 사 람 들

담 임 목 사 이 태 한
부 목 사 이 성 철
부 목 사 이 성 훈

청 년 예 배

금 주 기도
김준섭 형제
다음 주일
홍진솔 자매

수 요 예 배

오후 7시 30분
4 남여선교회
헌신예배
현석호 장로
잠언 16:31
4 남여선교회
영화의 면류관
이태한 목사
450장
다같이

이번 주는 Prayer Together에서 보내온 힌두인을 위한 15일 기도 소식입니다.

세계적으로 연합기도 운동을 이끌고 있는 worldchristian.com의 주관하에 금년에도 ‘힌두인을 위한 15일 기도’가 지난 11월 8일부터 시작되어 22일까지 진행됩니다.

‘15일 기도운동’은 힌두인들의 최대 축제인 ‘디왈리(Diwali)’ 기간을 전후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합심해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 디왈리 축제는 힌두교의 ‘빛의 축제’인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빛이심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에게도 그 참된 빛이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최근 이 디왈리 축제를 앞두고 시내 곳곳에 포스터나 광고가 붙어 있고, 일반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이를 오클랜드, 나아가 뉴질랜드의 명물 행사 중 하나로 소개하고 있다.

심지어는 힌두교 공동체가 디왈리를 2022년부터 뉴질랜드 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힌두교회는 디왈리가 “뉴질랜드 시민들을 강력한 화합과 단결을 이끌 것”이라며 디왈리의 공휴일 지정을 요구했다. 세계 힌두교회의 라잔 제드(Rajan Zed) 회장은 부활절 성금요일과 같은 다른 종교 기념일은 공휴일로 지켜지는데, 힌두교 최대의 명절에 힌두인들이 직장과 학교에 나가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힌두교는 기독교와 이슬람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종교이다.

실상 디왈리 축제는 힌두교의 3억 3천만이나 되는 우상을 따르고 섬기는 행사로 매년 10월 또는 11월에 맞는 디왈리는 집과 사원 등에 등불을 밝히고 힌두교의 신들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인도 전통 명절이자 축제다. 올해 15일 기도의 내용은 특별히 억압받고 있는 힌두 여성들의 삶에 대한 실상에 초점이 주어졌다.

우리 한인 교회들도 이 나라의 타민족 이웃,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시대에 살고 있는 인류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지경을 넓히고 이 기도 운동에 동참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또한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날마다 살피며 준비하는 것이 기도하는 이들에게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힌두 이웃들도 분명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라는 긍휼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다.

기도 제목

- 힌두 남성들은 여성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그리스도인 남성들이 지역사회에서 좋은 본이 되도록.
- 힌두인들이 예수님을 또 다른 한 명의 능력 있는 선생이 아니고, 오직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으로 알게 되도록.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1.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이끌어 가는 교회로 강건하게 세워지도록.
2. 자유로운 예배 공간을 주심에 감사하며 주의 몸 된 교회를 많이 사랑하도록.

2020년 11월 15일 주일예배 설교말씀 <아브람의 실수> 창세기 16:1-6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언약까지 맺어 주셨음에도 자녀가 없는(16:1) 즉 신앙과 현실 간 차이가 있는 그때에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1) 교만 때문에 실수했습니다: 사래는 자기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는 묘안을 냈습니다(16:2).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할 때 마침 배가 거기에 있었던 것과 같이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하갈을 준비해 주고 정당화시켜 줍니다. 하갈은 불신앙이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래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16:2)라는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묘안을 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자기 목적에 이용하는 교만이며 이 묘안은 당시의 풍습이기에 처음에는 실수로 보이지 않았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에(잠 16:8) 실수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또한 아브람처럼 사래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앙의 이중생활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합리화하는 실수였습니다.

2)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실수했습니다: 아브람과 사래는 약속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후에 하갈을 첩으로 들였습니다(16:3). 10년이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을 보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녀가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말씀처럼(삼상 15:22)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리는 순종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에셀이 아니라고 하셨는데도 아브람이 사래의 말을 들은(16:2) 것은 아브람도 이미 그 생각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와 방법에 관한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때를 정해놓고 낙심하는 대신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다려야 합니다(시 126:5).

3) 책임회피의 실수를 하였습니다: 임신한 여종 하갈은 사래를 떨시하며(16:4) 주인을 깔봤습니다. 사래는 자기가 받는 고통은 아브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며(16:5)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인간적 방법을 택한 결과로 문제가 생기자 하나님을 끌어들이며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16:5). 그러나 이것은 기도가 아니며 믿음도 아니고 책임회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속 사람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아브람도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면서(16:6) 책임을 회피하는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책임을 묻던 장면과도 같습니다. 이렇듯 의인은 한 사람도 없으며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에(롬 3:10, 23) 우리 모두에게 오직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갈보리 온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금주의 암송 말씀 - 창세기 16:7

여호와와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